

자랑스런 STIMA人

헌정 박계홍 선생

자랑스런 STIMA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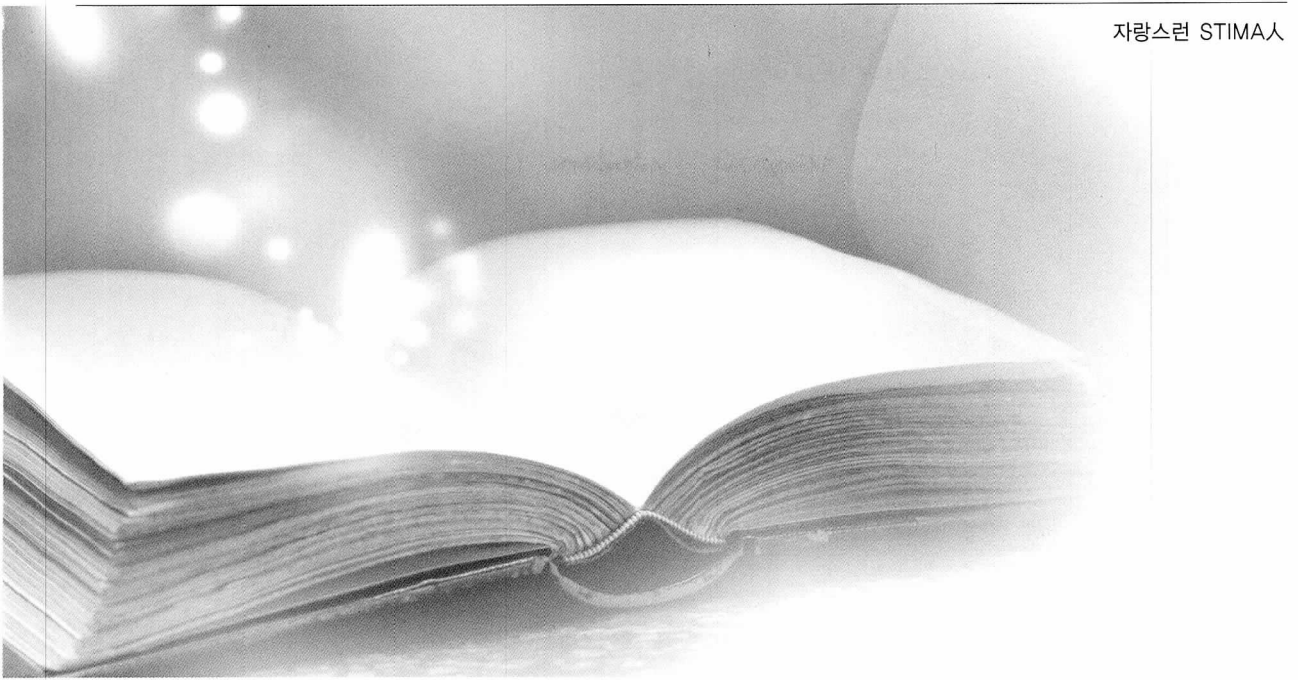


현정 박계홍 선생

현정 박계홍 선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도서관계 대부로 불린다.
황무지였던 도서관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외로운 선구자의 역할을 통해
오늘날 STIMA의 토대를 만들어 주신 분이다

글 _ 최호남

- ■ ■ ■ 玄靜 박계홍 선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도서관계의 대부로 불린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출연연구소였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입소하신 이래 그 당시에는 황무지였던 도서관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외로운 선구자의 역할을 자임하시어 왕성한 활동과 수많은 업적을 통해 우리 분야 후진들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을 부인하지 않는다.
- ■ ■ ■ 현정 선생은 연세대학교 도서관학당에서 그 당시 신학문인 도서관학을 이수하시고 뜻한 바 있어 196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도서실 책임자로 입소하신 이래 과학기술 도서관계 발전의 기틀을 만드셨다. 1972년에 우리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의 모태인 서울연구개발단지도서관실무자협의회회의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1991년에는 이 협의회의 후신인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회의 회장직을 역임하셨고 같은 시기에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으로 피선되어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인으로서 최초로 한국 도서관계의 수장이 되셨다.
- ■ ■ ■ 현정 선생은 특히 국제적으로 명성과 인맥이 출중한 분이셨다. 국제회의나 외국 인사와의 미팅에서 국제적인 감각과 유모로서 항상 좌중을 압도하셨다. 평소 4개 국어에 능통하셨던 선생께서는 30대 젊은 나이에 이미 열정적인 도서관 활동으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시어 1978년부터 10년 동안 국제도서관연맹(IFLA) 아주지역 부집행위원으로 활약하셨다. 정년퇴임시에는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의 도서관계 인사들로부터 현정 받은 논문들이 기념논문집의 주류를 이루었을 정도로 국제통이셨다.
- ■ ■ ■ 내가 현정 선생과 인연을 가지게 된 것은 1981년도에 KIST에 입소하여 선생을 부서장으로 모시게 되면서부터이다. KIST 내부 일은 대부분 차석이셨던 장정남 실장께서 처리하셨고, 선생께서는 주로 외국 도서관계 인사와의 미팅이나 외부 도서관 관련 활동에 전념하셨다. 나는 그 때마다 수행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곤 했었다. 그 분은 자상하게 일을 가르쳐 주는



타입이 아니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터득하도록 지켜보는 타입이었다. 이 분의 탁월한 국제 감각은 정평이 나서 그 당시에 일부 과기원(KAIST) 교수들조차도 이 분한테 영문편지를 검토 받곤 했었다. 이 분의 출중한 능력과 경험을 흉내내면서 배운 지식이 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선생께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 ■ ■ ■ 선생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70~80년대에는 과학기술계 도서관들이 국내 도서관계를 이끌어 갔다. 도서관 업무 자동화 등 정보기술의 도서관계 도입을 주도했던 그룹이 연구단지 도서관들이었다. 매년 새로운 도서관 정보기술과 서비스 동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서비스 창출에 앞장섰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대학이나 다른 분야 도서관에 채택되어 운영되기가 일쑤여서 우리 과학기술계 도서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었다. 현정 선생은 1980년대 후반에 과학기술부로부터 국가과학기술종합도서관(Comprehensive Science Library) 설립 추진을 위한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OCLC, UTLAS, BLDS 등 선진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연구단지 도서관인들의 대규모 해외 훈련 프로그램과 온라인공동편목시스템 개발을 통한 자료 공동활용 사업을 주도하셨다.
- ■ ■ ■ 우리 협의회는 지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협의체 활동을 위해 1994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오랫동안의 노력 끝에 드디어 2003년 3월 27일에 과학기술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 받은 사단법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의 토대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현정 박계홍 선생이시다.
- ■ ■ ■ 틈나는 대로 책을 보시는 모습에서 그 박식함이 들어 나시고, 평소 유명한 미식가이신데다, 노소 동락을 주장하시는 모습에서 속박을 싫어하시는 최고의 지성임을 느낄 수 있어 감히 선언컨대 현정 박계홍 선생이야말로 우리 STIMA의 영원한 보배이시다.